

2012년 10월

로렌 골드너

독자들에게 알림 : 이 글은 서부해안에 있는 어떤 동지의 요청으로 쓰게 된 것이다. 그는 2012년 8월 시애틀에서 열린 “모두에게 모든 것을”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거기에는 “연성 마오주의” 카사마(Kasama) 경향의 성원들이 다수 참가했다. 이 글은 마오주의 역사에 관한 핵심만을 담고 있으며, 온전한 “좌익 공산주의” 관점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예민한 문제들도 빠져 있다. 이를테면 코민테른의 초기 세 차례 대회에서 벌였던 식민지와 반식민지 세계의 “민족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토론 같은 문제 말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 이제 막 마오주의에 대해 알게 된 젊은 세대 투사들에게 마오주의에 관한 비판적인 역사적 배경지식을 제공하려고 쓴 것이다.

마오주의는 이른바 “붉은 깃발을 든 부르주아 혁명”으로 불릴 수 있는 20세기의 광범한 운동의 일부였다. 베트남이나 북한을 떠올려 보면 된다.

마오주의를 이해하려면, 다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중국을 포함한) 30개 나라에 세계적인 혁명적 물결이 몰아쳤다. 그러나 혁명적 물결은 1918~21년 독일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1921년 이후 러시아 혁명의 패배로 이어졌으며, 스탈린주의에서 그 패배가 절정을 이루었다. 마오주의는 그러한 세계적인 혁명적 물결의 패배가 낳은 결과 가운데 하나였다. 마오주의는 스탈린주의¹⁾의 한 변종이다.

마오와 중국이 직접 관여된 패배의 첫 국면은 1925~27년, 즉 규모는 작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위치한 중국의 노동계급이 파업 물결 속에서 점점 더 급진화 하던 시기에 펼쳐졌다. 이 패배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7~27년에 걸친 노동자투쟁의 한 순환이 종결되었다. 이 순환에는 (러시아와 독일의 혁명에 덧붙여) 영국에서의 대중파업, 이탈리아 북부에서의 노동자평의회, 스페인에서의 광대한 소요와 파업들, 일본에서의 “쌀 폭동”, 시애틀에서의 총파업,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충돌들이 포함되었다.

1925~27년까지, 스탈린은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통제했다. 192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조언자들은 부르주아 혁명가 쑨원(孫文, 청 왕조를 무너뜨린 1911년 신해혁명의 지도자)이 이끄는 민족주의 국민당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또한 1921년 설립되었으며 작지만

1) 이 글 전반에서 “스탈린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시간과 상황에서 (중국에서처럼) 전자본주의적인 사회구조에 맞서 또는 서구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관료적 엘리트가 새로운 형태로 수행하는 계급지배를 가리킨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본다. 더 소수의 사람들은 맥스 샤호트먼 이론의 영향을 받아 “관료적 집산주의”로 본다. 정실 트로츠키주의는 스탈린주의 체제를 “기형적인 노동자국가”로 부른다. 보르디가주의자들은 그냥 “자본주의”로 부른다. 맑스주의-레닌주의(Marxist-Leninists)는 그러한 체제들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1920년대 이래로 엄청난 토론이 펼쳐져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월터 돔(Walter Däum)의 *The Life and Death of Stalinism*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트로츠키주의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책은 소련과 그 “자손”들이 모두 국가자본주의임을 논증한다. 스탈린주의자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나라가 아닌 경우에 “스탈린주의”라는 용어는 스탈린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싸우는 세력들 또는 이러저러한 “현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중요한 중국 공산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코민테른은 국민당에 정치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했는데, 국민당은 장제스(蔣介石, 1949년 이후 대만의 독재자가 됨)에게 장악되었다. 코민테른은 1920년대 초중반에 국민당을 “진보적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보았다. 이 시기 중국의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실제로 국민당에 가입했다. 일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일부는 공공연하게.

1920년대 중반 소련의 대외정책은 스탈린과 트로츠키 사이에 벌어진 내부 분파투쟁과 연결되어 있었다. 트로츠키의 정책은 (그 결점이 무엇이든, 그리고 결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소련의 고립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으로서 세계혁명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 슬로건으로 응수했다. 이는 국제주의적인 맑스주의 전통에서 그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탈선이었다. 이 시기 스탈린은 트로츠키에 맞서 우익 반대파 지도자 니콜라이 부하린과 연합하고 있었다. 소련과 코민테른의 정책은 해외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강력한 지원을 보내는 “우선회”를 통해서 이러한 연합을 반영하였다. 이 시기 장제스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명예위원이었다. 코민테른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지주들과 긴밀히 결합된 “군벌들”에 맞선 캠페인을 벌이는 데 대해 강력한 지원을 천명했다.

이 시기에 마오쩌둥(毛澤東)은 (아직 당의 핵심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정책을 옳은 쪽에서부터 비판했다. 그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1927년 봄, 장제스는 공산당과 급진적인 노동계급에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수천명의 노동자와 공산당 투사들을 학살했다. 그들은 코민테른의 국민당 지지 방침에 따라 완전히 비무장 상태였다.³⁾ 이 학살은 중국 노동계급과 공산당 사이의 관계를 끝장냈으며, 1930년대 초반 마오가 최고 지도부에 오르는 길을 열었다.

중국 공산당의 다음 국면은 코민테른의 이른바 “제3기”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에서의 재앙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 소련에서 스탈린은 트로츠키주의 좌파를 절멸시킨 뒤 부하린주의 “우파”를 겨냥했다.⁴⁾ (실제로는 “우파”의 누구도 스탈린보다 더 반동적이지는 않았다.) 1928년부터 1934년까지 지속된 제3기는 전 세계에 걸쳐 “초좌파” 모험주의의 시기였다. 많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처럼 중국에서도, 제3기는 “모든 곳에서의 소비에트” 슬로건을 포함했다. 그 자체로 나쁜 슬로건은 아니지만, 그 실행이 너무 자의적이었다. 1930년대에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역 조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립된 봉기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나, 모든 곳에서 피를 흘리며 패배하는 재앙으로 귀결되었다.

마오가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중국 서북방에 멀리 떨어진) 연안으로 “대장

2) Stuart Schram이 쓴 *Mao tse-tung*(1966) 78쪽을 참조하라. Schram은 1925년 마오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한다. “마오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을 국민당 상하이 부로의 성원 자격과 통합시켰다. ... 그의 동료들은 왕칭웨이와 후한민이었는데, 얼마 뒤에 각기 좌파와 우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 (그는 휴식을 위해 후난성으로 돌아가야 했다.) ... 그러나 그의 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핑계였다는 점은 거의 틀림없다. 그는 공산당 안에서 국민당과의 협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 리리산은 그를 ‘후한민의 비서’라고 비웃었다. ...” 83~84쪽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다.

3) 이 모든 것들은 Harold Isaac이 쓴 책 *The Tragedy of the Chinese Revolution*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1934년 처음 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발행되었다. Isaac은 이 책을 쓸 때에는 트로츠키주의자였으나 나중에 “국무부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책을 다시 펴낼 때마다 논조를 낮추었다. 독자들은 이 점을 주의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나중에 나온 판본들도 여전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4) 1924년 레닌이 죽은 뒤 세 분파가 형성되었다. 트로츠키주의 좌파는 혁명의 수출과 더불어 농민에게서 강력한 잉여가치 추출을 토대로 하는 맹렬한 공업화 정책을 주창했다. 부하린은 농민에 의한 소생산자 자본주의에 대해 훨씬 더 느슨한 태도를 갖는 “달팽이 걸음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스탈린은 그 사이에서 “동요”했다. 이에 관해서 <Insurgent Notes> 이번 호에 실린 John Marot 책에 대한 서평을 참고하라.

정”을 시작하였으며,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은 사회계급이긴 하지만 맑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혁명적 계급은 아닌 농민을 향해 다가가도록 중국 공산당을 새롭게 방향지운 것은 이러한 패배들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였다.⁵⁾ (1917~21년 내전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보여준 것처럼, 농민은 노동계급 혁명의 동맹자가 될 수는 있다.)

일본은 1931년 (중국 북동지방인) 만주를 침략했다. 그 때부터 일본이 패배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공산당과 국민당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삼각관계로 대결이 펼쳐졌다.

“제3기” 정책은 독일에서 히틀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독일에서 공산당은 나찌가 아니라 “사회파시스트” 사회민주당을 “주적”으로 공격했으며, 심지어 파업들 속에서 사회민주당에 맞서 나찌와 협력하기도 했다.) 1935년 코민테른은 다시 “인민전선”으로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는 파시즘에 맞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동맹하는 것을 뜻했다.

식민지와 반식민지 세계 전반에서, 공산당은 이전의 반식민지 투쟁을 완전히 내려놓고서 서구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로 달려들었다. 보기를 들어,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공산당은 “민주적인” 프랑스 식민권력을 지지했다. 스페인에서 공산당은 스페인혁명과 내전에서 공화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했다. 그동안 공산당은 공화당이 (2백만 명을 포괄하고 있던) 무정부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로 비난받았던 “중도주의”) 독립 좌파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 그리고 진짜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진압하는 데 협력했다. 후자의 세력들은 스페인 북동부 공장들을 점거하고 농촌에 농업코뮌을 수립했었다. 공화당과 공산당은 그들을 모두 쓸어버렸으며, 그리고선 프랑코에 맞선 내전에서 패배했다. 스페인에서 소련의 주된 목표는 1935년 프랑스와 결성한 반히틀러 연합을 자신이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

중국에서 인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일본에 맞서 (8년 전 수천의 노동자들을 학살했던) 장제스를 지지하는 것을 뜻했다.

옌안(延安) 대장정 시기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마오는 당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악명높은 그의 부하 kangsheng(康生)은 중상모독하는 소문, 공개재판과 처형을 통해 마오가 반대파와 잠재적 경쟁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왔다. 기억할 만한 하나의 사건은 왕쉬웨이(王实味)와 관련된 것이다. 그는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였으며, 맑스의 <자본> 가운데 일부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마오와 kangsheng은 그를 함정에 빠뜨린 뒤 여러 차례 공개재판에 회부해서 파멸시키고 당에서 축출했다. (그는 1947년 장제스에 맞선 내전의 마지막 국면에서 공산당이 옌안을 떠날 때 마침내 처형되었다.)

마오의 농민 군대는 1949년 중국 전역을 정복했다. 중국의 노동계급은 1927년까지는 공산당의 기반이었지만, 이 가짜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완전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때 “진보적 민족주의”로 여겨졌던 국민당은 완전히 평판을 잃었다. 국민당은 지주계급의 당이 되었고, 부패로 가득 찼으며, 치솟는 물가에 책임이 있었다. 또한 일본(1945년 이전)이나 공산당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데 더 관심을 가진 장교들이 지휘했다.

5) 요약하자면 이렇다. 전(前)자본주의 조건 아래서 농민의 역사적 계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적 소농 경영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다. 그러한 조건 아래서 농민은,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동맹자가 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속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의 “민주적 과제”와 (‘토지를 농민에게’ 같은)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가 결합된다. (자본주의라는) 부르주아 생산양식이 존재한다.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기가 있으며 그 속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이 된다. 그러나 “농민적 생산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농민으로 하여금 지배적인 어느 계급의 동맹자가 되는 것으로 그 역사적 역할을 제한하게 한다.

마오 통치의 첫 시기는 1949년부터 1957년까지였다. 그는 새로운 정권이 “네 계급의 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부르주아 민족혁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쑨원이 25년 전에 내걸었던 강령이었다. 부패한 지주계급은 몰수당하고 제거되었다.

여기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늘 그랬듯이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과 전자본주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몰수는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산당 정권은 진정으로 인기가 있었으며, 공산주의자가 아닌 많은 해외 중국인들이 조국의 재건을 도우려고 귀국했다. 일부 “진보적 자본가들”은 자신의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30년 동안의 혼란 뒤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인민해방군은 또한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김일성이 미국과 유엔군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했다. 물론 한국전쟁은 냉전의 두 블록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의 일부였다는 점, 1953년 이후 김일성이 북한에서 수행한 것은 또 하나의 스탈린주의 유형의 “붉은 깃발을 든 부르주아 혁명”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북한은 더 나아가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세습 왕조가 되었으며, 이제 3대 세습에 이르렀다.)

우리는 중국 혁명을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탈린주의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스탈린주의의 한 변종으로서 마오주의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등장했다. 동유럽 전역을 장악했으며, 중국에서 승리했다. 북한과 북베트남에서는 권력을 향해 나아갔고, 식민지와 반식민지 세계에서 일어난 투쟁들에서 거대한 권위를 누렸다. (식민지와 반식민지 세계는 냉전이 지구를 미국과 소련을 정점에 둔 두 적대적인 블록으로 분할하면서 제3세계로 새롭게 불리게 되었다.)

마오와 중국 공산당이 스탈린과 소련으로부터 다소 독립적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마오와 중국 공산당은 자기 나름의 유형을 가진 스탈린주의였다. 마오와 중국 공산당은 또한 소비에트와 노동자평의회 권력, 즉 애초에 러시아 혁명과 독일 혁명을 특징지었으며, 본래 코민테른이 1919년 설립되는 기반이 되었던 바로 그 소비에트와 노동자평의회 권력으로부터 백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여기서 매듭을 다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1949년부터 소련과 중국이 분열하는 1960년까지 소련은 수천 명의 기술자와 고문관을 중국에 보냈다. 또한 중국의 핵심 간부 수천 명 이상을 소련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훈련시켰다. 1920년대 이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1950년대에 중국 권력에 수립된 “모델”은 본질적으로 소련 모델이었다. 다만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농민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 맞게 변형되었을 뿐이다.

세계의 스탈린주의는 1956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뒤흔들렸다. 헝가리 혁명에서 노동계급은 소련의 개입으로 진압되기 전까지 노동자평의회를 수립했다. 폴란드에서는 “10월” 노동자 봉기가 일어나 권력이 스탈린주의 “개혁파”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소요사태들에 앞서 제20차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이 저지른 많은 범죄를 폭로하는 연설을 했다. 여기에는 1930년대 초반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5백만에서 1천만의 농민이 학살되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흐루시초프가 언급하지 않은 범죄도 많았다. 자신도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가 연설을 한 목적은 스탈린주의 관료제를 구원하기 위해 스탈린을 부정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련 블록과 서방 사이 “평화 공존”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범죄에 대한 폭로와 (1953년 동독에서의 노동자 봉기에 뒤이은) 동유럽에서의 노동자 봉기들은 스탈린주의 신화가 끝장나는 시작이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투사들이 거 짓을 위해 자신의 삶을 수십 년 동안 헌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환상에서 깨어나 비통

한 마음으로 공산당에서 뛰어나왔다.

호루시초프의 1956년 연설은 그 이후 마오주의자들에게 소련에서 “수정주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된다.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미친 듯이 날뛰는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수정되었던” 주된 것은 스탈린주의 테러였기 때문이다. 마오주의자들과 맑스주의-레닌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테러를 은연중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간주한다. 1956년 소련에는 강제노동수용소에 1천만에서 2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수년 동안 종종 북극권에서 이루어진 강제노동 속에서 겨우 생존한) 그들의 석방 또한 아마도 “수정주의”의 일부였을 것이다. 마오주의자들은 또한 호루시초프의 연설을 종종 “자본주의 복원”과 동일시한다. 이는 그들의 “맑스주의”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현실의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지도자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다고 말하는 셈이니 말이다.

마오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호루시초프의 연설을 잘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그들의 엄격한 지배는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다.⁶⁾ 그래서 정권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른바 “백화제방” 운동이었다. 국민당의 만행에 반발하여 공산당 정권을 향해 결집했던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백가지 꽃을 활짝 피우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라고 초대되었다.

비판의 분출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마오와 공산당은 신속하게 비판을 잠재웠다. 그리고선 “백화제방” 운동을, “뱀들이 굴에서 나오게 만들어”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많은 비판자들이 체포되어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마오주의가 국제적 경향이 되기 시작했다. 마오주의는 호루시초프 연설 이후에 친소련 공산당을 떠난 이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경향은 강경한 초스탈린주의 소수파였다. (이들테면, 그들은 자기네 나라의 공산당이 헝가리 혁명을 강제로 진압한 소련의 침공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1960년대 초까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제3세계에서, 이 경향은 미국과 소련의 “사회제국주의”에 맞서 중국에 동조하는 “맑스주의-레닌주의” 당들이 되었다.

중국 자체에서는, 정권이 백화제방 시기의 재앙 이후에 방침을 바꿀 필요를 느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 안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더 받은 기술관료들과 마오 사이에서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기술관료들은 중공업 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파적 양상은 1966년 터져 나온 “문화대혁명”으로 귀결되었다.

마오는 1958년 이른바 “대약진운동”을 일으켰다. 소련식 중공업이, 차출된 농민들이 “뿔마당” 아무데서나 시행하는 소규모 산업생산으로 대체되었다. 농민들은 “인민공사”로 강제 편입되었으며, 10~15년 안에 자본주의 서방의 경제적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든 곳에서 술과 냄비 그리고 농기구들이 집안의 가보들과 함께 뿔마당의 작은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녹여서 강철을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죽여주는 작업속도로 말이다. 결과는 곡물 농사를 지어야 할 농업 노동력의 엄청난 고갈이었다. 1960~61년 기근이 찾아와 1천만에서 2천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다.⁷⁾

6) 이를테면 Ygael Gluckstein이 초기에 쓴 책 *Mao's China*(1955) 가운데 특히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라는 제목이 붙은 장을 보라. Gluckstein은 중국을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다. Gluckstein은 이후 토니 클리프(Tony Cliff)라는 필명으로 더 널리 알려졌으며,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으로 이름을 바꾼 영국의 한 그룹을 이끌었다.

7) 어떤 이들은 희생자가 더 많았다고 추정한다. 연구자들은 기근이 얼마나 격렬했는지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Judith Banister는 1958~61년 사이에 3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China's Changing*

“대약진운동”의 대실패는 중국 공산당 안에서 마오의 입지에 끔찍한 타격을 안겼다. 대약진 운동은 현실의 물질적 조건을 희생시킨 대가로 주의주의 유형의 극단적 형태를 보여주었다. “인민이라는 백지 위에 초상화 그리기”로 표현되는 그의 유명한 노선에서 요약되듯이, 주의주의는 늘 마오의 사고를 특징지었다.⁸⁾ 류사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 주변에 포진한, 소련의 영향을 받은 기술관료들은 마오를 상징적인 얼굴마담으로 내몰았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어서 완전히 숙청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실질적 권력을 박탈했다. 그리고 몇 년 뒤 “문화대혁명”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문화대혁명”은 권력복귀를 위한 마오의 시도였다.⁹⁾ 그것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 벌어진 분파투쟁이었다. 여기에 수백만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수정주의”를 공격하고 마오에게 실권을 돌려주기 위해 모든 곳에서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 분파투쟁은, 그리고 그 근처에 놓여 있는 이전의 마오의 주변화는, 수만 명이 살해당하고 수백만 명이 박해받았던 이 과정¹⁰⁾의 진정한 이유라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스탈린 치하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미쳐 날뛰는 이데올로기 속으로 내던져졌다. “수정주의”로 의심받은 (또는 단지 개인적인 반목 때문에 희생양이 된) 수백만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농민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농촌으로 보내졌다. 이는 실제로는 그들을 과로사로 점철된 강제노동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정치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병원에서마저 의료 시술의 책임을 맡은 것은 외과의사가 아니라 당 이데올로그였다. 결과는 뻔했다. 도시의 학교들은 3년 동안 (1966~69년) 닫혀 있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젊은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오주의 분과가 “수정주의자”나 “류사오치 친자본주의 일파”(류사오치 본인은 감옥에서 병사함)로 지목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심지어 살해하였다.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1978년,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고된 농업노동을 수행해야 했던) 덩샤오핑이 권력에 복귀했을 때, 중국의 1인당 농업생산은 1949년보다 결코 높지 못했다.

수정주의자들의 지배를 “인민의 권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던 상황논리 속에서, 일부 경향들은 “반역은 정당하다”(造反有理)는 마오의 슬로건을 더 멀리 밀고 나아갔다. 사태는 통제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다. 1949년 이후 공산당 통치과정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1967년 초반 “상하이 코뮌”처럼, 급진화된 노동자들을

Population(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Frank Dikotter는 최근에 (5천만에서 6천만에 이르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Mao's Great Famine*.

- 8)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립되던 시점에 마오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들도 맑스를 미처 읽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동아시아에 존재하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조류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등장했다. (모호하게 이해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톨스토이 평화주의, 헨리 조지주의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의주의”(Voluntarism)라는 용어는 여기서 다음의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대약진운동 같은 에피소드들, (앞에서 말했듯이) 소련 블록을 흐루시초프 연설에 기초해서 “자본주의”로 규정짓는 것, 문화대혁명 때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가족배경이나 “수정주의”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더욱 관념적인 방식으로) 계급을 규정한 것. 중국 공산당 창립 시점에 주의주의 이데올로기 경향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으려면 Maurice Meisner, *Li ta-chao and the Origins of Chinese Marxism*을 참조하라. 칸트에 대한 초기 독서로부터 유래된 마오의 주의주의에 대해서는 Frederic Wakeman, *History and will: philosophical perspectives of Mao Tse-tung's thought*를 참조하라.
- 9)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분석은 Simon Leys, *Chairman Mao's New Clothes*이다 (1969년 프랑스로 출판되고 몇 년 뒤 영어로 번역됨). Leys는 문화대혁명 전후에 권력을 쥔 마오주의가 만들어 낸 문화적 사막에 관한 멋진 책도 썼다. *Chinese Shadows, The Burning Forest and Broken Images*. 그의 책은 오늘날 “문화대혁명”에 관해 향수를 느끼는 모든 이에게 읽어볼 가치가 있다.
- 10) 자유주의 학자 Song Yongyi는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몇몇을 서술한다. 문화대혁명의 학살에 관한 그의 책은 불행히도 프랑스어와 중국어로만 되어 있다. 그는 *Encyclopedia of the Cultural Revolution*을 편집하기도 했는데, 딱딱하고 학구적이다.

포함하는 자주적인 코뮌이 형성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 인민해방군이 개입했다. 사실 인민해방군은 문화대혁명의 주된 “승자” 가운데 하나였다. 인민해방군은 “친자본주의 일파”와 마오주의자 둘 다에 맞서 제3세력이 되려던 경향들을 근절하는 데 그 역할이 있었다. (옌안 시절 악독한 일을 도맡아 했던 kang성은 문화대혁명 기간 내내 권력에 복귀하여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마오의 반대파들을 비난하고 축출하며 종종 처형하는 일을 도왔다.)

사태가 “너무 멀리 나아가 버린” 사건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군대가 진입하기 전까지의 짧은 상하이 코뮌과 함께, 마오의 고향인 후난성(湖南省)에 존재했던 성우리엔(省无联) 경향¹¹⁾을 들 수 있다. 성우리엔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본 뒤 일련의 문서들을 발표했는데, 중국 전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중국이 “새로운 관료 지배계급”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성우리엔의 투사들은 “마오쩌둥 사상”과 “맑스주의-레닌주의”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자신들의 관점을 위장하려 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양 분파는 이것을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다.¹²⁾

문화대혁명 시기에 제기된 더 흥미로운 비판에는 견습 노동자였던 위루어커(魏罗克)가 쓴 글과 나중에 1978년 베이징의 “민주의 벽” 사건 때 28살 먹은 베이징 동물원의 전기기사 웨이징성(魏京生)이 발표한 성명서¹³⁾가 있다. 위루어커가 쓴 글은 성우리엔의 글과 마찬가지로 널리 퍼져 중국 전역에서 읽혔다. 그의 글은 문화대혁명이 “계급”을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가족배경과 정치적 신뢰도라는 “혈통”에 따라 정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위루어커는 1970년 처형되었다. 덩샤오핑의 권력복귀를 위해 활용되었던 민주의 벽 또한 통제를 벗어났고, 그래서 1979년 진압되었다.

마오 분파는 1969년 의기양양하게 재등장했지만, 그의 부인 장칭(江青)이 포함된 사인방¹⁴⁾은 1976년 마오의 사망 직후 체포되어 실각했다.¹⁵⁾ 마오 분파의 승리는, 종종 간과되는 점이지만, 마오가 소련에 대한 균형추로서 미국에 은밀히 접근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1969년 중국과 소련의 군대는 국경선을 따라 국지전을 벌였다. 그러자 마오는 북베트남과 베트남에게 보내는 소련의 지원물품에 대한 운송을 모두 금지했다. 이 운송 금지

11) 성우리엔(省无联)은 ‘후난성 무산계급혁명 조반파 연합’(湖南省 无产阶级革命 造反派 联合)의 약칭이다. - 옮긴이

12) 성우리엔의 가장 중요한 문서인 「중국은 어디로?」의 영역본(Whither China?)을 보려면 다음 주소를 참조하라. <http://signalfire.org/?p=6810>

13) 다음 주소를 참조하라. <http://www.rjgeib.com/thoughts/china/jingshen.html>

14) 사인방은 문화대혁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한 지도자들로 인식되었다. 공공연하게 또는 무대 뒤에서 사태를 지휘한 중앙 기관은 원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kang성, 첸보다(陈伯达), 장칭, 야오원위안(姚文元), 왕리(王力) 등이 포함되었다.

15) 앞서 인용한 Simon Leys의 책들은 1976년까지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매우 훌륭한 그림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주의하며 읽어야 하지만 분명히 유용한 흥미로운 책은 Dr. Li Zhisui,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1994)이다. Li는 195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의 개인 주치의였으며, 그 시간의 대부분을 베이징의 특별구역에서 다른 최고위 당 간부들과 뒤섞여 살았다. 또한 마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여행했다. 그 책의 영역본은 아름답고 젊은 여성에 대한 마오의 게걸스러운 성욕을 다루었다 해서 미디어가 주도하는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마오 인생의 마지막 20년 동안 떠오르고 가라앉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의 활동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마오가 중국의 왕조사, 즉 기원전 221년부터 1644년에 이르는 이른바 “24 왕조사”에 대해 깊이 있게 독서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마오는 무엇보다 궁정음모에 깊이 매료되었다. Li에 따르면, 마오는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한” 몇몇 황제들을 가장 크게 찬양했다. 이를테면 진 왕조를 세운 진시황제(기원전 221~206년)를 좋아했다. 진시황제는 악명높은 “분서갱유”를 명령했고, 많은 유교 학자들을 처형했다. 마오가 좋아한 또 다른 인물은 수나라의 양제(604~618)였다. 그는 엄청난 노동력을 징집해서 대운하를 건설하도록 명령했는데, 운하 건설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유지되었다. 마오가 1972년 초 미국 대통령 닉슨의 베이징 방문을 환대했을 때, 미국은 북베트남에 폭탄을 퍼붓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이 중국 바깥의 운동과 나라들을 회생시키는 보수적인 대외정책의 첫 번째 사례였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65년에 중국 정권은, 중소분쟁 이후 소련의 “수정주의”에 맞서는 “맑스주의-레닌주의”의 중심지라는 위신을 기반으로, 강력한 인도네시아 공산당으로 하여금 민중주의-민족주의 지도자 수카르노와 긴밀한 동맹을 맺도록 고무했다. 이는 1927년 중국 공산당의 장제스와의 연합을 정확히 되풀이한 것이었다. 대학살로 귀결된 것도 똑같았다. 1965년 가을 미국의 고문관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획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60만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원과 지지자들이 살해당했다. 베이징 정부는 그 학살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다가, 1967년에야 그 사건들이 벌어질 때 자카르타에 있던 중국 대사가 돌을 맞았다고 불평했을 뿐이다. 1971년 중국은 스리랑카에서 트로츠키주의 학생운동을 유혈진압하자 공개적으로 환호했다. 같은 해 중국은 (인도와 동맹한 소련에 맞서 미국과 함께) 파키스탄의 독재자 야히야 칸을 지지했다. 그는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의 일부였다가 독립을 선언하자 대대적인 탄압을 퍼부었다.

1971년 국내정책에서도 기이한 전환이 일어났다. 마오가 매료되었던 고대 왕조의 궁정음모를 본뜬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 린바오(林彪)는 공공연한 마오의 후계자였다. 해외의 마오주의 언론도, 그 시점에 확실한 친마오주의자였던 프랑스 지식인도 같은 노선을 열렬히 떠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린바오가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1971년 후반, 아마도 수년 동안 마오의 가장 긴밀한 친구였던 린바오 또한 친자본주의 일파이며 내내 국민당의 비밀요원이었다고 알려졌다.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린바오는 군 비행기를 징발해서 소련 국경을 향해 도망쳤다. 비행기는 몽골에서 추락했고, 그를 비롯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¹⁶⁾ 몇 달 동안 서구의 마오주의자들은 (Simon Leys가 “서방에서 가장 중요한 친마오주의 일간지”라고 규정했으며 베이징 특파원이 헌신적인 마오주의 추종자였던 르몽드지를 포함해서) 세계 언론에 실린 이러한 설명을 순전히 부르주아들의 날조라고 비난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 자신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자, 서구 마오주의자들은 순식간에 입장을 바꿔서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린바오를 비난했다. 이를 보고 Simon Leys는 이 열렬한 신봉자들이 “개가 물속에 빠진 뒤에는 때리지 말라”는 중국의 오래된 속담을 “개가 물속에 빠질 때까지는 때리지 말라”로 바꿔버렸다고 논평했다.

이것은 마오주의의 세계 전략과 중국의 대외정책이 기이하게 전환하는 데서 단지 시작점일 뿐이었다. “주적”과 “더 큰 위협”은 더 이상 미국에 중심을 둔 세계 제국주의가 아니라 바로 소련 “사회 제국주의”였다. 그래서 미국이 19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를 전복시킨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지원했을 때, 중국은 즉시 피노체트를 인정하고 쿠데타를 환영했다. 1975년 친소련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치하에서 앙골라가 독립을 선언하자 인종차별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가 앙골라를 침공했을 때에도, 중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원했다. 1974~75년 포르투갈 혁명 동안, 그곳의 마오주의 세력은 극우 세력에게 손을 뻗었다. 서유럽 전반에서 마오주의 경향은 소련의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

16) 그러나 다른 설명도 있다. 그에 대한 영역본은 Yao Ming-Le, *The Conspiracy and Death of Lin Biao*로 1983년 출판되었다. 이 책은 린바오의 비행과 죽음이라는 거짓 이야기를 개발하도록 임무를 떠맡았던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필명으로 작성한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Yao에 따르면, 마오와 린바오 사이에는 필사적인 투쟁이 물밑에서 펼쳐졌다. 린바오는 쿠데타를 일으켜 마오를 살해할 구상을 세웠으나, 그것이 탄로나면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Simon Leys는 그의 책 *The Burning Forest*에서 Yao의 설명이 다른 알려진 사실들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NATO)의 강화를 호소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난도 마르코스가 자기 나라에서 마오주의 게릴라 운동을 진압하려 시도하는데도 그를 지지했다.

마오주의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서구의 신좌파 세력들에게 확실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그룹들 사이의 분과적 차이를 이해하려면 너무 골치 아픈 일이며, 그들 대다수는 1980년대까지 다 사라졌다. 그러나 “마오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는 초스탈린주의 진보노동당 같은 몇몇 그룹들이 일찍이 1969년부터 뭔가를 알아차렸으며 그해에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 그룹들 대다수는 반대파에 대한, 그리고 때때로 자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탈린주의 폭력행위로 특징지어진다.¹⁷⁾ 1975년 무렵 그들의 영향력은 크게 확산되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맑스주의-레닌주의” 학습모임이 있었으며, 수백 명의 핵심들이 노동계급을 조직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 1970년대 중반까지, 세 개의 주요 마오주의 그룹들이 미국 좌파에서 가장 우세한 흐름으로 등장했다. Bob Avakian이 이끄는 ‘혁명적 연합’(Revolutionary Union, 나중에 ‘혁명적 공산당’(RCP)으로 이름을 바꿈), Mike Klonsky가 이끄는 ‘10월 동맹’(October League), ‘공산주의 노동자당’(Communist Labor Party)이 그들이다. 그밖에 신좌파 씨클들과 흑인해방운동 안에서도 마오주의는 폭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서로 다른 마오주의 그룹들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일부나마 이해하려면, 구 “수정주의” 미국 공산당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된다. ‘10월 동맹’ 같은 더 온건한 그룹들은 인민전선 기간 동안 Earl Browder의 지도력으로 돌아갔다. ‘공산주의 노동자당’ 같은 더 강경한 그룹들은 더 공공연하게 스탈린주의자 윌리엄 Z. 포스터에게 기대를 걸었다. 이들과 소규모 그룹들은 Enver Hoxha가 이끄는 알바니아, 즉 (중국이 친미로 돌아선 뒤에도) 얼마동안 세계에서 유일한 진짜 “맑스주의-레닌주의” 나라로 남아 있었던 그 나라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이데올로기 전투를 벌였다. 한 작은 그룹은 “세 개의 제3 : 제3인터내셔널/제3기/제3세계”를 열심히 떠들어댔다.

독일에서는 신좌파 마오주의가, 1968년 “반권위주의 운동의 긍정적인 극복”이라고 매우 신중하게 이름붙인 과정 이후에 상승세를 탔다. 가장 큰 경향은 마오주의 독일공산당(KPD)으로 훨씬 더 큰 친소 독일공산당(DKP, 1% 득표도 거의 하지 못함)에 맞서 싸웠다. 마오주의 독일공산당에서 다수의 더 작은 “K자 돌림” 그룹들이 떨어져 나왔다. 이를테면 “붉은 고국 맑스주의-레닌주의 독일공산당” 같은 시적인 이름을 가진 조직도 있었다. 오로지 독일공산당(DKP)만이 1972년 노동조합에 침투해 들어가는 등 노동계급 속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정부는 자신의 “급진적인 법령”을 공포했고, 친소 독일공산당(DKP)과 마오주의 계열의 K자 돌림 그룹들은 모두 시련을 겪었다.

이탈리아 공산당(PCI)은 1976년 선거에서 25%를 득표했고, 기독교 민주당과 “역사적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마오주의자들을 포함한 극좌 세력 전체를 “테러주의자”라며 범죄시하는 동안 그저 편안히 앉아있었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1978년 봄 ‘붉은 여단’이 우파 정치인 알도 모로를 납치하여 처형한 뒤 극좌세력에 대한 탄

17)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얻고자 하면 Max Elbaum의 책 *Revolution in the Air*를 참조하라. 이 책은 이 그룹들을 1960년대 미국에서 출현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그룹들로 바라본다. 짧은 설명을 원하면, 그에 대한 나의 논쟁적인 서평 *Didn't See The Same Movie*(<http://home.earthlink.net/~lrgoldner/elbaum.html>)를 참조하라.

압이 진행될 때, 정부를 열심히 도왔다. (알도 모로는 이탈리아 공산당이 기독교민주당 주도의 거대연립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줄 “역사적 타협”에 서명하려 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마오주의가, 훨씬 더 큰 주요 트로츠키주의 당들(노동자투쟁,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 공산주의 조직 등으로 이들 모두는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의 영향력에 결코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 마오주의 계열 “맑스주의-레닌주의” 그룹들은 1968년 5~6월 총파업 때 사태를 조작하려는 역할을 수행한 것 때문에 평판을 잃었다. 이를테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경찰과 대치하며) 매우 심각한 가두전투가 벌어진 밤에 한 사람이 바리케이드 앞으로 나아간 뒤, 모든 것은 정부의 도발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1970년 봄에, 한 소규모 초스탈린주의적이고 초전투적인 마오주의 그룹 ‘프롤레타리아 좌파’(GP)가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잠깐 동안 장 폴 사르트르를 자신의 방어자로 끌어들이었다. 전국적으로 전투적인 개입들이 장관을 이루며 이어졌다. 사르트르는 그 전 20년 동안 친소련, 친쿠바, 친중국 입장을 잇달아 가졌었는데, ‘프롤레타리아 좌파’가 소멸당하는 것을 막아낸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좌파’는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광란 때문에 그 직후 붕괴했다. (‘프롤레타리아 좌파’는 1977년 이후 Bernard-Henry Levi와 Andre Glucksmann이라는 특히 바보 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 둘을 배출했다. 원래 ‘프롤레타리아 좌파’의 신문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매우 훌륭한 일간지가 된 리베라시옹의 편집장 Serge July도 있다.)¹⁸⁾

분노한 젊은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Mao-spontex’라는 그룹도 있었다. 이들은 “문화대혁명”의 마오주의를 “자유의지적” 교리로 상상하고 1968년 이후 몇 년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전투적인 행동들을 벌였다.

영국에서도 마오주의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반면 두 트로츠키주의 사회주의노동자동맹(SLL)과 국제사회주의(나중의 사회주의노동자당)는 1970년대 정점에 있을 때 수천 명의 당원과 노동계급 속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 일본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처럼) 마오주의가, 전투적인 전학련 속의 거대하고 정교한 신좌파 그룹들에 맞설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전학련은 마오주의만이 아니라 트로츠키주의도 싫어했다. 전학련은 소련과 중국을 공히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했다. (오로지 작은 친북한 지하그룹 “적군파”만이 어떤 식으로든 마오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1976년, 앞서 말했듯이 마오가 죽을 때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던 마오주의 사인방은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대신 덩샤오핑이 이끄는 “수정주의자들”이 권력으로 복귀해서, 1978년 시작된 “시장 사회주의” 또는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중국을 올려놓을 준비를 했다.

이처럼 기괴한 이데올로기적 시기는 1978~79년에 마침내 종결되었다. 이제 미국의 굳건한 동맹자가 된 중국은 베트남을 공격했다. (디엔비엔푸 전투의 승리로 유명한) 잡 장군이 이끄는 베트남 군대는 거칠게 반격했다. 여전히 소련과 동맹을 맺고 있던 베트남은 친마오주의 크메르 루즈를 축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점령했다. 1975년 캄보디아를 장악한 크메르 루즈는 1백만 명 이상을 살해한 상태였다.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한 것에 대응하여, 소련은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직까지 서구에서 마오주의자로 남아있던 이들에게는

18) 과거의 프랑스 마오주의자들은 아주 이상한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1968년에 호진적인 마오주의자였던 Roland Castro는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의 절친이 되었으며, 미테랑의 임기 동안 중요한 기술직에 임명되었다.

깜짝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는 사태 전개였다.

다른 곳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마오주의자들은 암흑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지는 않았다. 공장이나 노동계급 밀집 주거지로 갔던 이들 가운데 다수는 노동조합 관료기구 안에서 영향력의 지위를 높였다. 이를테면 ‘자유의 길’ 그룹의 Bill Fletcher는 존 스위니가 1995년 AFL-CIO를 장악했을 때 수석보좌관이 되었다. ‘10월 동맹’의 Mike Klonsky는 1976년 사인방이 몰락한 뒤 중국 정권과 공식적인 연계를 세우려고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는 ‘10월 동맹’이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혁명적 공산당’이 웨스트버지니아 탄광촌으로 파견한 조직가들은 몇 차례 비공인 파업에 결합하였다(그러나 이 파업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설을 가르치는 데 반대하는 것이었다). 혁명적 공산당은 또한 1975년 보스턴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흑백공동 버스통학제에 반대하는 인종주의 단체(ROAR)를 지지했다. Bob Avakian은 다른 네 명의 혁명적 공산당 당원들과 함께 1978년 덩샤오핑이 미중 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을 때 단상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여러 중대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vakian은 지금까지 파리에 망명 중이다. 1984년과 1988년 여러 계열의 마오주의자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선 재시 잭슨 목사의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먼데일을 유리하게 하는 효과를 낳으며 잭슨이 패배하는 데 일조했다.¹⁹⁾

공산주의 노동자당 당원들은 더 나쁜 운명으로 고통받았다.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직물공장 노동자 거주지 여러 곳을 조직하고 있었는데, 1979년 KKK 단원들이 그들의 집회에 충격을 퍼부어 다섯 명이 사망했다. 2011년 가을 오클랜드 점거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운동을 탄압한 오클랜드 시장 진관과 그녀의 핵심 조언자들 몇 명이 바로 과거 공산주의 노동자당 당원들이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앨러미다 카운티 노동평의회와 고위 간부들도 과거 공산주의 노동자당 당원들이었다.

더 최근에는 Avakian에 대한 개인승배로 충만해 있던 과거 혁명적 공산당의 한 당원이 Kasama 네트워크를 결성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이제 적어도 인터넷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마오주의자들은 최근 네팔의 연립정부에 결합했다.²⁰⁾ 1960년대 또는 심지어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그룹들이 필리핀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Naxalite로 통칭되는 마오주의 그룹들이 1970년대에 강력하게 형성되었다가 인디라 간디에게 진압당한 뒤, 최근에 다시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부활했다. 인도에는 상당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마오주의와 맑스주의-레닌주의 그룹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페루의 ‘빛나는 길’ 그룹 또한 비슷하게 후지모리에게 진압당했으나 꾸준히 재건해 왔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같은 그룹들을 공공연히 모델로 언급한다.

1978년 이후 중국 자체에서는 마오주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시장 사회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1978년 이래로 거의 35년 동안 연 평균 10%에 가까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중단 없이 이끌어 온 중국 정권에게, 마오쩌둥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빼놓을 수 없는 상징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공식 어법으로, 마오는 “70%는 옳았고 30%는 틀렸다.” “틀린” 부분은 통상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뜻한다. 비록 그 사건들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완전한 금기사항까지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미진하게 남아 있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른바 신좌파는 마오주의와 문화대혁명을 향수를 갖고 장밋빛으로

19) Max Elbaum은 앞에 인용한 책에서 민주당 정치로 뛰어든 이 소동에 대해 열광적으로 말하고 있다.

20) 마오주의자들이 네팔 정부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은 다음을 참조 : <http://libcom.org/tags/nepal>

바라보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²¹⁾ 최근 고위급 관료 보시라이의 몰락에도 마오주의의 영향이 깔려 있다. 보시라이는 충칭의 실력자로서 단호한 민중주의 스타일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의 반대파 일부는 “새로운 문화대혁명”의 위험을 경고했었다. 중국에서는 마오의 집권 기간(그리고 그 이전 시기) 전체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젊은 세대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관한 정보의 작은 조각들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1978년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이 끔찍하게 확산된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신화 속에 묻힌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복고가 덜 반동적이거나 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

1978년 이후 일어난 모든 것은 1978년 이전에 존재했던 정권의 본질 속에 그 기원이 있다. “반혁명”은 전혀 없었다. 기존 사회적 생산관계의 변혁 또한 없었다. 마오주의는 최고 지도자의 이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매우 관념적이고 주의주의적인 정치 개념을 스스로 폭로한다. 마치 1956년 흐루시초프의 연설과 해빙에 대해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말이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의 중국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의 중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철밥통이 다 깨졌다”는 논리가 구 정권을 옹호하는 최고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사용되지만, 이는 1950~60년대에 산업 중심지에서 상당한 불안정 노동자가 존재했음을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의 진짜 “새로운 좌파”가 맑스주의 운동의 역사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마오주의의 위치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할 때까지, 그리고 특히 그 기원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아니라 1917~21년의 패배한 세계 프롤레타리아 운동과 스탈린주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마오주의는 중국에서 그리고 신흥 세계의 여러 부분에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마오주의가 주기적으로 드러내는 초스탈린주의적인 기괴한 모습을 (페루에서처럼) 반복하든지, 아니면 서구, 일본, 한국, 또는 중국 자본²²⁾이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출현을 허용하기 위해 다가올 때까지 전자본주의 형태의 농업을 파괴하고 강제적이고 전체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사회주의”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는 세력이 되든지 하면서 말이다.

21) Lance Carter가 중국의 신좌파에 대해 쓴 글이 <Insurgent Notes> 1호에 실려 있다.

22) 최근 몇 년, 무엇보다 원자재 조달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미 몇몇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새로운 식민주의”를 경고하고 있다. 뻘뻘스럽게도 서구의 지도자들은 중국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착취하지 말라”(!)고.